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록 개회식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9일 (월)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식 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폐 식

(사회: 의사팀장 문윤선)

(14시 14분 개식)

○**의사팀장 문윤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8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노금식** 사랑하는 560만 충청권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민호 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첫 임시회를 열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국제 정세의 변화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대외 여건의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환율 변동성과 수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생활물가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면밀한 대응과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내외 여건과 지역 현안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상황 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연합의회는 충청권 지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2월은 한 해의 방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걸음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연합의회 또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충청권 공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충청광역연합 발전 전략과 연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뜻깊은 논의의 장이 열렸고, 이 자리에 유인호 부의장님께서 좌장으로 함께하시며 연합의회의 방향성과 책임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는 김응규 부의장님께서 ‘충청광역연합, 실질적 초광역 행정을 위한 국가 사무 이양 및 재정 기반 강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국가 사무의 단계적 이양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는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춘 조직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연합의회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과 우려 속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충청권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연합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비롯해 주민의 뜻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특정 지역이나 이해에 치우치지 않고 충청권 전체의 균형 발전과 공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이제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며 안정기를 넘어 도약기로 나아가 실질적인 성과로 주민들께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정책 하나, 조례 하나, 건의안 하나에도 충청권 전체의 미래가 담긴다는 책임감으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연합의회가 앞으로 초광역 행정의 실질화, 재정 기반 강화, 지역 간 협력 확대, 그리고 주민 체감형 정책 발굴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통찰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첫 번째 임시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과 과제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더욱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의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연합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을 다시 한번 살피며,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문윤선 이상으로 제8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23분 폐식)

○ 참석 의원(13인)

구형서	김광운	김선광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유인호	이옥규	조성태			

○ 의사사무처

사무처장	권승학
총무담당관	박윤정

○ 참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연합장	최민호
연합사무처장	이경우
초광역자치과장	임은영
초광역산업문화과장	김민희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원계령